『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대하여*

장경준**

요 약

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의 현토 방식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른바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한문 원문에서 통사 단위의 마지막 글자에 기본적으로 표음문자의 기능을 갖는 구결점을 달았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시선, 역독선, 경계선, 합부선, 구결자, 삐침선 등의 각종 부호를 사용하여 현토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였다.

지시선은 '구결점을 원칙적으로 달아야 할 글자에 달지 않고 그 윗 글자나 아랫 글자에 달았음'을 표시하는데, (1)원칙적으로 현토해야 할 글자의 현토 위치에 이미 다른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는 경우, (2)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상 현토 위치를 명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3)실수로 다른 글자에 현토한 경우 등에 사용되었다. 두 종류의 지시선 중에서는 상향 지시선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향 지시선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하향 지시선이 사용되었다.

*핵심어: 점토석독구결, 구결점, 지시선, 상향 지시선, 하향 지시선

---

* 이 글은 '제27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2003. 5. 17. 고려대) 및 '한자·한문 수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2003. 7. 24~25. 일본 富山大學)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1. 머리말

현재 국내에서 발굴된 점토석독구결[1] 자료 가운데 가장 연구 여건이 양호한 것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이라 할 수 있다. 초기의 자료 조사 결과가 이점본의 형태로 일찍이 공개되었고, 나중에는 원본을 정밀 촬영하여 얻은 사진본과 그것을 디지털화한 CD본까지 보급되어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원본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확인하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소장자이신 성암 조병순 관장님의 후의와 초기 조사에 참여하신 고바야시요시노리, 남풍현, 윤행순, 이승재, 정재영, 김영욱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힘입어 이 자료에 대한 해독 작업은 상당히 일찍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이 자료의 현토 방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다음, 이 자료에 사용된 부호 가운데 이른바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체계 및 개념은 잠정적으로 장경준(2001, 2002ㄴ)를 따르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口訣'은 "기존하는 한문 원문에 토를 달아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이고, 그 가운데 '點吐釋讀口訣'은 "한문 원문에 점, 선 등의 형태와 위치 정보를 결합한 구결점을 주로 이용하여 토를 닮으로써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성격이 비슷한 일본의 훈점 자료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비교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口訣 자료 : 한문에 懸吐한 것. (吐는 '口訣點', '口訣字', '符號'로 구성)
일본의 訓点 자료 : 한문에 加点한 것. (訓点은 '오코토점', '가나점', '符號'로 구성)

2.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방식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이해한 결과를 우리말의 언어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점토석독구결의 방식으로 토를 달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문 원문에서 단어나 구와 같은 통사 단위의 마지막 글자에 구결점을 단다'는 것이다.[2] 이때 구결점은 점(·, ··, ⁚, ∴, ·.)이나 선(-, |, /, \) 등의 형태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는지에 대한 '형태 정보'와 그것이 현토 대상 한자의 어느 위치에 현토되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결합하여 일정한 음상을 표상함으로써 자토구결에 쓰인 구결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표음문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동사와 동사의 논항 성분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동사구의 경우에는 해당 동사구 성분 끝의 한자에 동사의 어간이나 어미 부분을 표상하는 구결점까지 한꺼번에 현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동사구 내부의 어순을 독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토석독구결에서 논항 성분에 우측토와 역독점을 달고 동사 성분에 좌측토를 달아 어순을 지시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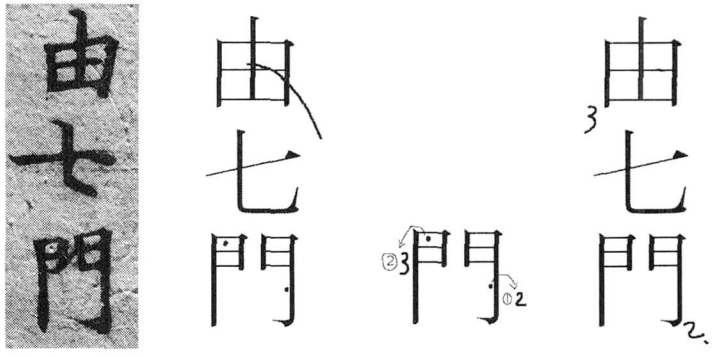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먼저 [그림 1]은 원문이 '由七門'으로 되어 있고 '七門으로 말미암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3] 이때 동사 성분인 '由'자에는 부호인 '역독선'이 그어져 있고 논항 성분인 七門의 마지막 글자에 구결자 '乙', '𠂇'에 각각 대응하는 단점 형태의 구결점이 달려 있는데,[4] '乙'은 논항 성분의 조사를 표상하고 '𠂇'는 동사 성분의 어말

2) 이 원칙은 南豊鉉(2000ㄴ:32-33)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李丞宰(2001ㄱ: 12)에서는 이를 '句節末 懸吐 原則'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3) 용례의 출전 표시에서 '08:05:13'은 "『瑜伽師地論』 卷8 5張 13行'을 뜻한다. 이하 같음.

4) 이 글에서는 예시하는 용례에 등장하는 구결점들이 각각 어떤 구결자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생략하기로 하며, 논의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각주에 표시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어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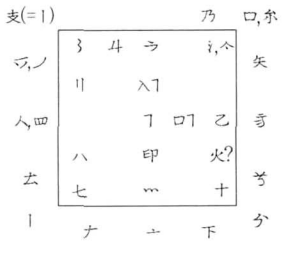
[그림 1] 08:05:13 점토석독구결 구결점-구결자 대응 자토석독구결

만일 자토석독구결 방식으로 토를 달았을 경우 '由'자의 좌측토로 표기

것은,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의 경우 구결점과 구결자의 대응 관계에 대해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많기는 하나 논란의 여지가 적은 용례들을 엄선한다면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을 논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용할 구결점의 표시 위치와 단점의 점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장경준(2002ㄱ, 2002ㄴ, 2002ㄷ, 2003) 등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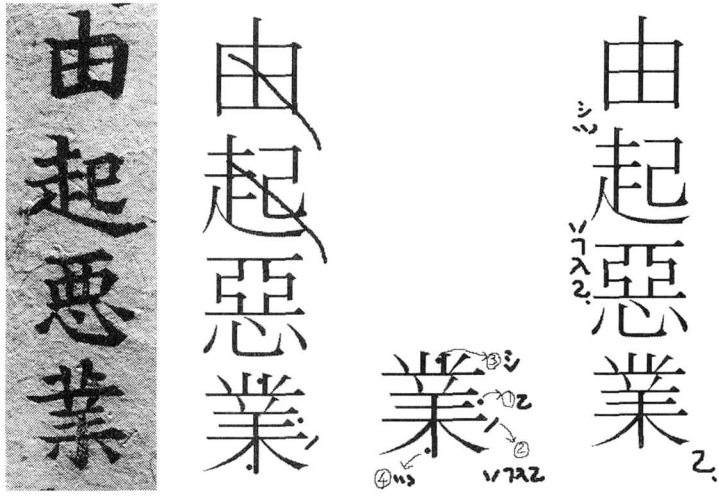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리고 구결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구결자 'ㅋ'에 대응하는 단점은 그 위치가 23이므로 '23(·)'으로 표시하고, 15와 24에 걸쳐 '/' 형태로 현토된 구결점은 '15~24(/)'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되었을 어미('ㅕ')가 이 자료에서는 동사구의 마지막 글자인 '門'자에 논항 성분의 조사('乙')와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그림 2]는 원문이 '由起惡業(故)'으로 되어 있고 '惡業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미암은 (까닭으로)'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즉, 동사 '由'의 논항 성분 안에 자신의 논항을 거느리는 동사('起')가 포함되어 있는 형식의 예인데, 현토 결과를 보면 동사 성분인 '由'와 '起'에는 각각 부호인 역독선이 그어져 있고 전체 동사구의 마지막 글자('業')에 '乙, ㅕ, ㅱ'에 각각 대응하는 단점 형태의 구결점과 'ㅅㄱ(ㅅ)乙'에 대응하는 사선 형태의 구결점이 달려 있다.[5] 이때 '乙, ㅱ'는 조사를, 'ㅕ'는 용언 어간을, 'ㅅㄱ(ㅅ)乙'은 어간-어미-(의존명사)-조사의 통합체를 각각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08:06:04 점토석독구결 구결점-구결자 대응 자토석독구결

이 용례에서 '業'자에 달려 있는 4개의 구결점들을 각각 대응 구결자로

5) '45(/)'의 대응 구결자를 'ㅅㄱ(ㅅ)乙'로 확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바꾸어 자토석독구결 방식으로 변환시키면 'ㄹ'은 '業'자의 우측토로, 'ㄴㄱ(ㅅ)ㄹ'은 '起'자의 좌측토로, 'ㅓ'와 'ㅛ'는 '由'자의 좌측토로 각각 현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림 2]처럼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동사구의 경우에도 조사, 어미, 어간형 등의 정보를 표상하는 구결점들을 전체 동사구의 마지막 글자에 모두 표시한다는 점에서 [그림 1]의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에 대응하는 구결점을 단어나 구 등의 통사 단위의 마지막 부분에 현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각종의 부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1)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글자에 현토하였음을 표시하는 지시선, (2)어순상 역독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표시하는 역독선, (3)기준 사각형의 모서리나 변 등을 표시함으로써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선, (4)여러 개의 한자가 하나의 현토 단위임을 표시하기 위한 합부선, (5)현토된 구결점이 명확치 않거나 다른 구결점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을 경우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결자, (6)아직 기능을 밝히지 못한 삐침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지시선, 합부-역독선, 경계선, 삐침선 용례(08:03:18-19)



[그림 3-1] 구결자 용례 (08:14:14)

예를 들어 위 [그림 3]과 [그림 3-1]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호들이 관찰된다.

(1) '比方'에는 "이 두 글자가 하나의 현토 단위임"과 "어순상 역독의 과정이 필요한 서술어임"을 동시에 나타내는 '합부-역독선'[6]이 그어져 있다.
(2) '一'에는 "원칙적으로 이 글자에 현토되어야 할 구결점들이 윗글자('第')에 현토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 형태의 '지시선'이 길게 그어져 있다.
(3) '第'에는 "'第'자의 아래에 있는 '/' 형태의 구결점이 ('一'에 현토된 것이 아니고) '第'의 아래쪽에 현토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사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4) '第'의 왼쪽 아래에는 한 점에서 시작하여 위쪽 바깥으로 길게 뻗어나간 형태의 '뻐침선'이 그어져 있다.[7]
(5) '句'에는 "현토된 구결점이 구결자 'ㅣ'에 대응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구결자 'ㅣ'가 오른쪽 아래에 기입되어 있다.

요컨대 점토석독구결에서는 표음문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결점을 통사 단위의 마지막 부분에 현토하되 현토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각종의 부호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8]

---

6) 직선 모양의 '합부선'과 곡선 모양의 '역독선'이 이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7) '뻐침선'이라는 용어는 최근 각필구결 연구 모임에서 이승재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다.
8) 이 자료의 현토 방식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한 이상의 내용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덧붙인다.

3.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방식의 기본 원칙은 단어나 구와 같은 통사 단위의 마지막 글자에 구결점을 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결점을 달다 보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달아야 할 글자의 윗 글자나 아랫 글자에 구결점을 다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구결점을 원칙적으로 달아야 할 글자에 달지 못하고 그 윗 글자나 아랫 글자에 달았음"을 지시하는 부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시선'이다.

지시선은 원칙적으로 구결점을 달아야 할 글자에 '/' 혹은 '\'의 형태로 길게 선을 긋는데, '/' 형태의 지시선은 "윗 글자에 달았음"을, '\' 형태의 지시선은 "아랫 글자에 달았음"을 각각 뜻한다.



[그림 4] (08:18:17)



[그림 4-1] (05:17:16)

예컨대 [그림 4]에서 '會'자에 그어진 '/' 형태의 부호는 '원칙을 벗어나 윗 글자에 현토하였음'을 가리키고 [그림 4-1]에서 '轉'자에 그어진 '\' 형태의 부호는 '원칙을 벗어나 아랫 글자에 현토하였음'을 가리킨다.[9]

9) 두 형태의 지시선이 갖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앞으로 '/'와 '\'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각각 '상향 지시선', '하향 지시선'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지시선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가? 다시 말해 현토자는 어떤 이유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토를 달아야 할 글자의 윗 글자나 아랫 글자에 구결점을 달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선이 사용되는 첫 번째 환경은 현토해야 할 글자의 현토 위치에 이미 다른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음을 보자.



[그림 5] (08:11:02) (겹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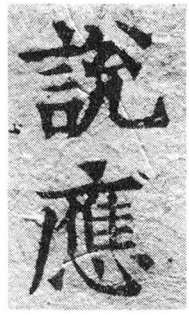
[그림 5-1] (05:03:04) (겹치는 위치)

[그림 5]에서는 '別'자에 'ㅅ', 'ㄹ'에 각각 대응하는 31(·), 34(·)을 현토한 다음 이어서 'ㅅ', 'X'[10]에 대응하는 31(·), 51~52(:)을 현토하려 하였으나 이미 31 위치에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 지시선을 긋고 윗 글자인 '差'자에 31(·), 51~52(:)을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1]의 경우 '邊'자에 'ㅎ', 'ㄴㅣㄹ'에 대응하는 35(·), 35(/)을 현토하려 하였으나 두 구결점의 현토 위치가 겹쳐서 상향 지시선을 긋고 나중에 읽을 35(/)을 윗 글자('有')에 현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51~52(:)은 종결어미 '-ㅣ'를 포함한 어떤 어형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나 분명치 않다.



[그림 5-2] (08:18:11) (겹치는 위치)



[그림 5-3] (08:12:04) (겹치는 위치)

또한 [그림 5-2]는 '淨'자에 'ㅗ', 'ㅅㄹㅗ'[11]에 대응하는 53(·), 53(:)을 현토하려 하였으나 현토 위치가 겹쳐서 하향 지시선을 긋고 53(:)을 아랫 글자에 현토한 경우이며, [그림 5-3]은 '說'자에 'ㅅㄱ', 'ㅅㄱㅐㄱ'에 대응하는 33(\), 33~43(/)을 현토하려 하였으나 역시 현토 위치가 겹쳐서 33~43(/)을 아랫 글자에 현토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자료의 현토자는 한 글자에 현토해야 할 구결점들 중에 위치가 겹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위치에 두 번째로 현토할 구결점부터는 윗 글자나 아랫 글자를 빌어 현토하고 그러한 사정을 지시선을 통해 독자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다.

지시선이 사용되는 두 번째 환경은 현토해야 할 글자의 자형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결점을 찍기가 곤란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구결점의 위치 변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점도상의 기준 위치가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에 따른 구체적인 위치(즉, 변이 위치)로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12] 구체적인 예들을 보자.

---

11) 53(:)이 'ㅅㄹㅗ'에 대응될 수 있다는 추정은 아직 근거가 미약하다.

12) 변이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각형의 네 모서리로 삼을 글자의 획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장경준(2002ㄷ)을 볼 것.





[그림 6] (05:10:14) (기준 위치)





[그림 6-1] (08:09:11) (기준 위치)

[그림 6]의 경우 '者'자에 'ㄱ', '十', '氵'에 각각 대응하는 구결점 23(·), 44(·), 22(·)을 찍으려 하였으나 '者'자의 자형상 22 위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곳, 즉 왼쪽 위 모서리로 삼을 만한 획이 없어서 22(·)은 위의 '法'자에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6-1]의 경우에는 '中'자에 '十', '亽', '가'에 각각 대응하는 구결점 44(·), 24(·), 55(·)을 찍으려 하였으나 '中'자의 자형상 24(·)을 찍을 만한 곳이 44(·)을 찍은 곳과 너무 가까워서 44(·)과 24(·)을 변별하여 인식할 만큼의 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윗 글자인 '迦'자를 빌어 그곳에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2] (08:14:16) (기준 위치)





[그림 6-3] (08:15:01) (기준 위치)

또한 [그림 6-2]에서는 '了'자에 'ㄴ'와 'X'[13]에 각각 대응하는 53(·), 54~55(:)을 현토하려 하였으나 '了'자의 자형상 54~55(:)을 현토할 곳이 마땅치 않아 윗 글자인 '解'자에 현토하였고, [그림 6-3]에서도 같은 이유로 '一'字에 현토하려 했던 'ㅂ'와 'ㅎ'에 각각 대응하는 22~32(·)과 55(·)을 '初'자에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자료의 현토자는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상의 특징 때문에 구결점을 찍을 위치가 마땅치 않을 때 윗 글자나 아랫 글자를 빌어 현토하고, 그러한 사정을 지시선을 통해 독자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다.[14]

지시선이 사용되는 세 번째 환경은 단순한 실수로 현토 대상 한자에 현토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음 예들을 보자.



[그림 7] (05:11:10) (기준 위치)



[그림 7-1] (05:20:03) (기준 위치)

[그림 7]에서는 '種'자에 'ㅅ'에 대응하는 31(·)이 현토되어 있고 '子'자에는 지시선이 그어져 있는데, 내용상으로도 이 31(·)은 '子'자에 현토되어야 할 구결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1(·)을 '子'자를 피

13) 54~55(:)은 종결어미 '-ㅎ'를 포함한 어떤 어형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나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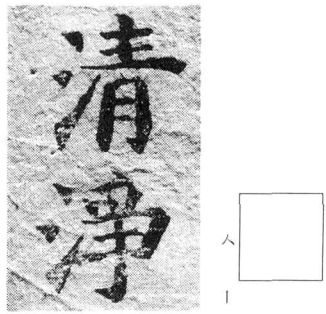
14) 이 자료의 현토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토 대상 한자에 경계선을 긋고 구결점을 현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장경준 2003ㄷ:25-26 참조).

해 '種'자에 현토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그림 7-1]의 경우에도 '樂'자에 현토되어야 할 'ㄴ', 'ㅇ'에 각각 대응하는 34(·), 55(·)이 특별한 이유 없이 '喜'자에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례들은 현토자가 실수로 현토해야 할 글자의 윗 글자에 현토한 다음 그것을 발견하고 지시선을 그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현토자가 실수로 다른 글자에 현토한 다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시선을 긋지 않은 채 지나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예들이 간혹 관찰된다.



[그림 8] (05:15:03) (기준 위치)



[그림 8-1] (08:18:09) (기준 위치)

[그림 8]과 [그림 8-1]에서 '緣'자에 현토된 'ㄴ', 'ㅇ'에 대응하는 34(·), 55(·)과 '淸'자에 현토된 '人', '丨'에 대응하는 31(·), 51(·)은 모두 다음 글자에 달렸어야 할 구결점들이다. 따라서 다음 글자인 '緣'자와 '淨'자에 지시선을 그었을 것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지시선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서 지시선이 사용되는 환경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필자가 조사한 총 67개의 용례들의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15]

[표 1] 지시선이 사용된 용례의 유형별 분석

종류 \ 사용환경		유형1-위치 중복 관련 (총 30례)	유형2-위치 변이 관련 (총 29례)	유형3-단순 실수 (총 8례)
상향지시선(총 54례)	권5	得(4:13),憂(4:16),事(5:6),苦(6:14),欲(6:16),會(6:17),奇(8:2),生(8:19),用(10:1),信(10:12)	勝(1:20),依(2:18),邊(3:4),世(3:8),一(5:20),天(6:9),手(7:1),少(8:19),者(10:14),主(10:15),險(18:17)	天(7:8),子(11:10),行(17:13),樂(20:3)
	권8	慾(7:6),利(9:12),謂(10:1),別(11:2),他(11:15),失(12:7),族(12:15),別(17:19),事(17:21),行(19:12)	界(2:22),執(3:4),常(3:11),一(3:19),中(5:23),心(6:5),乏(7:18),中(9:11),了(14:16),妙(14:14),一(15:1),天(16:23),前(18:5)會(18:17),中(18:21)	訣(2:6),前(4:21),者(6:2),樂(9:6)
하향지시선(총 13례)	권5	等(5:4),癰(5:9),觸(5:12),故(7:20),故(14:3),宜(20:1)	轉(17:16)	(용례 없음)
	권8	者(11:4),說(12:4),故(13:16),淨(18:11)	中(6:14),方(9:9)	(용례 없음)

[표 1]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료에서 지시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는 현토자가 현토 원칙을 어기고 다른 글자에 구결점을 달게 된 것이 대부분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16]

한편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실은 지시선이 사용된 용례 가운데 현토 대상 한자(A)에 현토해야 할 구결점이 여럿이고 그중의 일부가 사정상 다른 글자(B)에

15) [표 1]에 제시한 용례 가운데 밑줄을 그은 것은,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원본의 훼손 상태가 심하거나 하여 필자의 분석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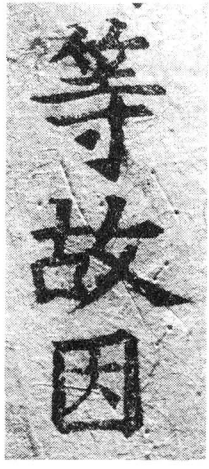
16) 따라서 연구 초기에 이것을 단지 '잘못 현토되었음'을 가리키는 부호로만 해석하여 '교정부호' 또는 '수정부호'라 하였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토된 경우, A에 현토된 구결점은 언제나 B에 현토된 구결점보다 먼저 해석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시선이 사용된 모든 용례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토자가 구결점을 달 때 해석에 먼저 반영되는 것부터 차례대로 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실은 두 종류의 지시선 중에서는 상향 지시선의 사용 비율이 훨씬 높으며, 하향 지시선은 첫째 원칙적으로 현토해야 할 글자(A)의 윗 글자(B)에 이미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거나, 둘째 B의 자형상 혹은 A에 이미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상 B에 구결점을 현토하기가 마땅치 않거나, 셋째 A와 B가 서로 다른 행에 속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 용례들을 보자.



[그림 9] (08:06:14)



[그림 9-1] (08:13:16)



[그림 9-2] (08:11:04)

[그림 9]에서는 '中'자에 '十', '丿', '乚'에 각각 대응하는 44(·), 15~24(/), 42(·)을 현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中'자의 자형상 44(·)과

15~24(/)을 함께 현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5~24(/)과 42(·)은 다른 글자에 현토해야 할 상황이다. 즉, 지시선이 사용될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中'자의 윗 글자인 '着'자에는 이미 42(·)이 현토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15~24(/), 42(·)을 현토할 형편이 못 되므로 '中'자의 아랫 글자를 빌어 그 곳에 현토할 수 밖에 없고, 결국 '貪'자에 15~24(/)과 42(·)을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7]

[그림 9-1]에서는 원칙적으로 '故'자에 현토되어야 할 7개의 구결점[18] 가운데 첫 번째인 15(\)과 여섯 번째인 15~25(/)의 위치가 겹친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구결점인 15~25(/)과 55(·)은 '故'자 이외의 글자에 현토해야 한다. 지시선이 사용될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故'자의 위에 있는 '等'자는 자형상 55(·)을 현토하기가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55(·)을 현토할 만한 위치에 '故'자에 현토된 15(\)이 이미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토자는 '等'자를 피하여 '故'자의 아래에 있는 '因'자에 15~25(/)과 55(·)을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2]에서는 '者'자에 현토되어야 할 6개의 구결점[19] 가운데 세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것이 동일한 31(·)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달아야 할 31(·)과 51~52(:)은 '者'자 이외의 글자에 현토해야 한다. 역시 지시선이 사용될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者'자가 행의 맨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바로 아래에 있는 '又'자에 31(·)

17) 사실 '貪'자도 자형상 15~24(/)을 긋기에는 마땅치 않은 환경이나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8) 이들을 해독에 반영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15(\), 34~44(/), 24(·), 43(·), 21(·), 15~25(/), 55(·)'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구결점들은 구결자 'X, ㅅㄱ火, ㅣ, ㅠ, ㅅ, ㅅ尸矣, 分'에 각각 대응되는 것일 가능성이 큰데, 이 중 '15(\), 34~44(/), 15~25(/)'의 대응 구결자 추정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다.

19) 이들을 해독에 반영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53(·), 15~25(-), 31(·), 34(·), 31(·), 51~52(:)'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ㅗ, 尸, ㅅ, 乙, ㅅ, ㅈㅣ'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51~52(:)의 경우 아직 분명치 않다.

과 51~52(:)을 현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하향 지시선이 사용된 모든 용례들은 위에 예시한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자료의 현토자가 지시선을 사용해야 할 환경에 처했을 때,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현토 대상이 되는 한자에 구결점을 달기가 곤란할 때에는 먼저 현토 대상 한자의 윗 글자를 빌어 구결점을 현토하려 하였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 현토 대상 한자의 아랫 글자를 빌어 구결점을 현토하려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의 현토 방식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 자료에 사용된 부호 가운데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문 원문에서 단어나 구와 같은 통사 단위의 마지막 글자에 기본적으로 표음문자의 기능을 갖는 구결점을 달았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시선, 역독선, 경계선, 합부선, 구결자, 삐침선 등의 각종 부호를 사용하여 현토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 자료에 사용된 부호 가운데 지시선은 '구결점을 원칙적으로 달아야 할 글자에 달지 않고 그 윗 글자나 아랫 글자에 달았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지시선이 사용되는 환경은 첫째 원칙적으로 현토해야 할 글자의 현토 위치에 이미 다른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는 경우, 둘째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상 구결점의 현토 위치를 명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셋째 실수로 다른 글자에 현토한 경우 등으로 파

악된다.

그리고 두 종류의 지시선 중에서는 상향 지시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상향 지시선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하향 지시선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시선의 기능과 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 특히 현토 과정에서 현토자가 의도적으로 지시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해는 이 자료를 올바로 해독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ㄱ),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三의 口訣에 대하여」, 『제24회 共同硏究會 發表 論文集』, 구결학회, pp.137~143.

_____(2001ㄴ), 「瑜伽師地論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pp.57~77.

_____(2001ㄷ),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第2回 國際學術大會 發表 論文集』, 구결학회, pp.215~229.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한국서지학회, pp.5~45.

_____·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訓點學會, 東京, pp.69~102.

徐珉旭(2001), 「'者'字의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67~197.

尹幸舜(2001), 「韓國의 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에 대하여」, 『日本 北海道大學 워크샵 發表論文集』, pp.91~106.

_____(2003), 「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比較 -『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10, 구결학회, pp.79~113.

李丞宰(2000ㄱ), 「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第23回 口訣學會 共同硏究會 發表論文集』, 구결학회, pp.59~69.

_____(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pp.135~152.
李丞宰(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太學社, pp.229~250.
_____·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pp.115~145.
장경준(2001), 「釋讀口訣에서 '故'字에 懸吐된 口訣字의 文法的 機能에 대하여」, 남기심 편, 『國語 文法의 探究』 V, 太學社, pp.537~568.
_____(2002ㄱ),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 2. 23) 발표 원고.
_____(2002ㄴ),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pp.205~225.
_____(2002ㄷ), 「구결점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pp.5~30.
_____(2003),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訓點學會, 東京, pp.36~6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롯데아파트 805-1303]
E-mail: verdulo@hanafos.com
접수일자: 2003. 06. 25.
게재결정: 2003. 08. 02.

On the 'indicatorline' used in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s point-attached seokdokkugyol

Chang, Kyong-jun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method of to-attaching(懸吐) and particulary inquires into the function and conditions of usuage of the 'indicatorline(指示線)' which used in the materials of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vol.V & vol.Ⅷ)'s point-attached seokdokkugyol(點吐釋讀口訣).

In that materials the kugyolpoints(口訣點) which basically function as phonogram are attached to the last part of syntactic units in principle. And various kinds of signs — indicatorline(指示線), inversionline(逆讀線), borderline(境界線), joinerline(合符線), kugyolcharacter(口訣字), etc. — are used in addition so as to clarify the to-attacher's messages.

The indicatorline represents the notion that some kugyolpoints are attached not to the principally requested character but to the upper or lower character of the principally requested one. And the conditions that indicatorline comes to use are as follows; (1) in case if plural kugyolpoints should be attached to same character and if the locations of kugyolpoints are overlapped, (2) in case if the locations of some kugyolpoints are not cleary

distinctive by reason of the shape of the principally requested character, (3) in case if to-attacher attached kugyolpoints not to the principally requested character but to another one by mistake. Between two kinds of indicatorline, the upward indicatorline(上向 指示線) is primarily used and the downward indicatorline(下向 指示線) is used only in case if it is hard to use the upward indicatorline for some reason.

*Key Words: point-attached seokdokkugyol(點吐釋讀口訣), kugyolpoint(口訣點), indicatorline(指示線), upward indicatorline(上向 指示線), downward indicatorline(下向 指示線)